ZOOM-IN

(주)하이비젼시스템

(주)하이비젼시스템(대표 최두원)이 지난 12월 13일 경기도 성남 하이비젼글로벌센터에서 관내 기관 단체장 및 산업계인사들과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하이비젼 글로벌센터) 입주식을 가졌다.

이날 환영사에서 최두원 대표이사는“바쁜 연말 일정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이비젼시스템 신사옥 입주식에 참석해주셔서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로벌회사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창립 16년 만에 신사옥을 갖게 되었으며, 회사이념인 공익, 창조 도전 정신에 따라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진 귀빈들께서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설수 있었다는 사실 잊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정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주)하이비젼시스템은 비전인식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자동검사장비 업체로 성장 해왔으며 글로벌 카메라 모듈업체와 렌즈회사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최두원 대표는 2002년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모듈(CCM) 검사장비 전문 업체인 하이비젼시스템을 설립했으며, 영상처리 기술과 이를 응용한 비전인식·검사테스트 알고리즘, 정밀 메카트로닉(기계와 전자공학 결합) 등 비전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가 현재 출시하는 제품의 약 50%가 하이비젼시스템의 검사 장비를 사용한다. 하이비젼시스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는 최근 3D센싱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 개발과 맞물려 증가하고 있다. 3D 센싱 기술은 공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대상의 입체감을 선명히 표현할 수 있는 기술로, 안면 인식이나 VR(증강현실) 구현에 쓰인다. 애플은 작년 출시한 아이폰X에 처음 3D 센싱 카메라를 도입했다. 삼성전자도 3D 센싱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S10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이비젼시스템 관계자는 “늘어나는 검사장비 수요에 맞춰 임직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체의 70%를 연구개발(R&D) 인력으로 유지하며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의 진화에 맞춰 차세대 검사장비 개발에 집중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